

기혼여성의 노모 부양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ing Behaviors according to Support Stress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이 신 숙

부 교수 서 병 숙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Doctoral Course: Sin Sook Lee

Associate Prof.: Byoung Sook Seo

〈 목 차 〉

I. 서 론	IV.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V. 결과 및 분석
III. 연구문제	VI.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married women's coping behaviors according to support stres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545 married women who were daughter and daughter-in-law.

For analysis of data, Factor Analysis, GLM, t-test, Regression, Pearson's Corre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Coping behaviors were composed seven factors that are Mental Disengagement, Venting of Emotions, Restraint, Seeking Support, Acceptance, Active Coping, Turning to Religion.
2. Among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relation, age of mother($P < 0.01$), income, grown place of supporter, living arrangement($P < 0.05$)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 on the coping behaviors to support stress.
3. There was high correlation between support stress and the coping behaviors. ($\gamma = .4339$)
4.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he higher group and the lower group of support stress on the coping behaviors.

I.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가족구조 및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가족중심의 생산기능이 기업중심의 생산기능으로 바뀌고 인구의 도시집중과 함께 가족분화가 이루어져 적은 수의 자녀를 둔 부부중심의 핵가족은 가족중심의 가치관에서 개인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띄게 된 것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사망율의 저하는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증가시켰고 도시로의 이동으로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 내·외의 변화는 가족과 개인의 제 적응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그 중 노인들이 당면한 고독, 소외, 역할상실과 경로효친사상 감퇴등의 가치체계 붕괴, 그리고 부양노인의 숫적 증가는 미래의 노인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가족이 노인과 공공기관 사이의 매개자(mediator) 및 노인에게 정보자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Shanas와 Hauser(1974)의 지적처럼 다양한 서어비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의 가장 원천적인 근원이며 더구나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의 경우,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자식의 의무이자 도리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사회, 문화적인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가족에 의한 부양체계는 계속 유지 발전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기술의 발전과 핵가족화는 가사노동의 단순화와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잔재된 전통적 사고와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은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는다. 즉 노부모와의 동거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가치관과 현실 사이에는 갈등이 많아 노부모부양으로 인한 역할 가치 사이에는 많은 혼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노부모의 가족부양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며느리나 딸은 그로인한 다양하고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그들의 역할수행에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

킨다. 가정에서의 주부, 어머니, 며느리, 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혼여성이 이와같은 다양한 역할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갖고 그로인한 심리적 손상을 가져온다면 가족의 형성과 발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에 기혼여성들이 스트레스에 직면하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와같이 부정적인 면이 더 작용하여 과중한 압박감은 심리적인 손상과 더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을 갖게 한다(조희선, 1991).

오늘날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기혼여성들의 취업으로 인한 가정과 직업역할간의 갈등과 다양한 가정내 생활사건으로 인한 개인 또는 가족간의 갈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단일한 일상의 문제거리(daily hassles)로 인한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가 극히 적기 때문에 노부모부양이라는 단일문제가 개인에게 안겨주는 부담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노부모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을 살펴봄으로써 노부모와의 질적 관계의 향상 및 바람직한 부양방법을 모색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부모의 가족부양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선행 연구

의학 지식의 발전과 높은 생활수준은 수명을 연장시켜 전체인구의 연령구조에서 노인의 인구를 증가시켜 노령화를 촉진시켰지만 이러한 노인의 양적 비대와는 대조적으로 노인의 지위는 하락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경제적 빈곤, 건강과 죽음에 대한 공포, 역할상실과 그로인한 소외감, 주위 환경 통제에 관한등으로 결국 노인들은 사회 지지체계 내지는 가족 도움등에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Lopata(1978)에 의한 지지체계는 생활양식의 유지

에서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주거나 받는 일련의 행위나 대상을 말하며, Caplan(1981)은 감정적 지지나 물질적 원조를 제공해 주리라 믿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라고 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 충고, 안내, 정보제공, 물질적 원조, 친구가 되어 주는 것, 어려울 때 보살펴 주는 것,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 및 서어비스라고 하였다(Warren, 1981: 성규탁, 1991에서 재인용). 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동료등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는 거의가 가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부양이라는 용어에 더 친밀하다.

부양의 개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금전이나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경제적부양, 청소, 심부름, 신체적 부축, 세탁, 질병시 시중을 제공하는 신체적부양,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며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정서적부양으로 나눌수 있으며 부양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으로 나눌수 있다. 공적부양은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보장 또는 복지시설에 의해 운영되는 즉 가족 또는 본인 이외의 외부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부양의 형태이고 사적부양은 노인을 가족, 친지나 이웃에 의한 개인적 차원 내지는 가족적 차원에서 부양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노인의 하락된 지위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초였으며 그 중 노인의 부양 및 보호문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던 것은 노인부양의 심각성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김태현(1981)은 한국노인의 많은 비율(47.3%)이 아직도 장남부부와 동거 하고 있어 노인부양에 있어서 가족부양은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1차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노인들의 경제적부양에 대한 만족도가 타 부양만족도에 비해 가장 낮고 또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다고 하였다.

송현애(1986)는 어머니의 의존감이 높고 성인자녀의 애착감과 의무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갈등이 적을수록, 애착행동이 많을수록 현재 어머니를 더 많이 부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여 노부모-자녀관계

의 만족이 부양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역시 분거한 장남부부의 부양의식 유형을 판별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노부모와의 유대관계 주요인을 조사한 임춘희(1987)는 장남인 남편의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보조해 드리겠다는 동거보조형의 부양의식을 가장 많이(55.4%) 갖고 있었다. 그리고 주관적 유대관계인 애착과 갈등이 부양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있으며 만머느리인 부인의 경우는 시부모와 따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보조해 드리겠다는 별거보조형의 부양의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33.8%), 갈등과 의무감이 부양의식 유형 판별에 가장 기여한다고 하여 부양수행과 부양의식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서병숙(1988)은 노인들의 노후적용에 있어 시급한 노부모 부양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노인의 대다수는 노후대책이나 비축없이 노후기를 맞게되고 그로인해 자녀에게 생활전체를 의존하게 되어 부양부담은 가중되고 결국은 친자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게 되어 자녀의 동거부양을 받으면서도 타국노인에 비해 행복도가 낮다라고 하면서 한국노인의 당면과제는 경제력자립이라고 하였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에서의 노부모 부양수행 정도와 부양의식을 딸과 며느리의 입장에서 비교한 이신숙과 서병숙(1991), 그리고 이신숙과 신희식(1988)의 연구에서는 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이 도시에서는 모두 며느리가 딸보다 더 높았으나 농촌에서는 부양의식은 딸이 며느리보다 높았으나 부양행동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며느리의 수행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족개념으로 딸이 갖는 부양의식과 실제 부양행동은 비례하지 못하고 아들과의 공유책임을 갖는 며느리의 부양수행 정도가 부양의식과는 관계없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송애(1991) 역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시가와 친가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양 의무감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기혼여성들의 부양행동은 친가보다 시가에 더 많이 행하고 있었고 시가에 대한 부양행

동에 영향을 준 것은 동거여부, 부양의무감, 교육수준의 순이었다. 그리고 시가, 친가에 상관없이 부양의무감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부양의무감에 따라서 노부모부양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전통적인 효관념이 노부모부양의 행동을 높인다고 하였다.

성규탁(1990)은 연구에서 우리는 그동안 사회복지제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지만 공식적 체계만으로는 소가족이 점증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보호부양제도로서의 가족의 능력과 중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위해 가족지원을 강화하는 문화적 요인 및 보완적인 서어비스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의 연구(1991)에서도 절대다수의 노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가족 지원망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다수의 부양자들은(좋은 싫든) 가족중심적 관계속에서 노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생의 만족에 대한 변인으로는 직업(있음), 학력(높음), 수입(있음) 및 용돈(많음)인데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하였다.

이가옥 등(1990)에 의한 노인부양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는 한국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으로 소득 및 주거보장과 보건의료서어비스의 확대, 사회적 서어비스의 확충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같이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피부양자가 갖는 부양만족감이나 그로인한 생활만족도 또는 효율적인 부양의 방법 그리고 가족부양을 보완하는 의미로의 서어비스 확대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점차 '효'라고 하는 부양적 사명에 개인의 희생 정도를 가법게 여겼던 우리의 도덕관념을 탈피한 부양자의 인간존중과 피부양자와의 원만한 관계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의 이영자(1992)연구에서는 부양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처방안을 부양자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2. 부양 스트레스(support stress)

스트레스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동란으로 이론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야 체계적으로 개념화 되었고 변화가 심한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조건의 불가피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트레스는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관심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개념정립이 모호한데 McCubbin 등(1980)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특수한 사건의 결과만이 아니라 사건에 의해 발생된 다양한 고통(hardship)의 결과라고 하였고 Croog(1970)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긴장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환경적 요구의 평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반응으로 주어진 사건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대처방안의 결핍으로 인한 개인적 스트레스 반응의 과정으로서 개념화하고 있는데 위와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학자마다의 개념정의에 대한 다양화는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스트레스가 인간의 적응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위기상황에 대한 적응의 원천을 갖게 하여 개인의 생존과 안녕에 역동적인 힘(dynamic)이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부담이 되는 심한 압박감으로 심리적 손상을 가져와 갈등과 좌절 및 더 나아가 신체적인 질병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조희선, 1991). Pearlin(1975)의 연구에서 여성이 직업과 가족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갖았다고 하고 있으며 Antonovsky(1979)도 역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감각하다가 우울에 빠져들어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손상이 온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인 이평숙(1984)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양과 건강 또는 질병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스트레스의 양이 높은 집단일수록 질병 발생의 경험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사건과 생활변화의 정도를 여러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효윤리의 오랜 전통과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로 대부분 노년기를 성인자녀에게 의존하고 그들의 자녀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일방적이고 편무적인 의무감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의 개념이고 부모에 대한 의무 중 부양의무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임춘희, 1987) 이러한 부양 의무감은 자녀의 생활을 압박함은 물론 부모-자녀간에 대립 또는 갈등을 빚어낼 위기마저도 포함되어 있어 최근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들은 노부모 부양(parent care, support)에 관한 비용과 부양자인 자녀의 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ieberman, 1978; Hagestad, 1985에서 재인용)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노모를 보살피는 딸’(Lang & Brody, 1983)이라는 상징적인 주제와 같이 서구에서도 노부모의 보살핌은 80%가 가족원에 의하며 그 중 대부분이 부인과 딸에 의한다(Lang & Brody, 1983) 이와같이 가족내 부모돌봄의 가장 규범적인 역할로서 친족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성이다. 부모부양의 개인적인 긴장과 부정적인 감정은 제공되는 도움의 실제 양보다 부모의 의존과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어(Cicirelli, 1981) 부모가 나이가 들거나 건강하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할 경우 또는 배우자를 사별한 홀어머니였을 경우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았다고 보고했다(Cicirelli, 1981; Johnson, 1978). Cicirelli(1981)의 연구에서 성인자녀의 73%는 부모 도움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적어도 한가지 이상은 경험한다고 하며 부모를 도울수 없음과 죄의식으로 좌절, 안타까움, 초조의 감정들을 경험했고 최선을 다하여 한다고 하여도 부모가 만족해하지 않는 것이 보고된 긴장으로 가장 많았다.

서구와는 달리 노부모와의 동거부양이 많이 이루어지며 아들과 함께 공유의 책임을 갖는 며느리는 시부모와는 혼인에 의하여 형성된 관계이며 특히 시모와의 관계는 아들과 남편과의 끈으로 맺어진 상호간에 ‘이방인’으로서(Fisher, 1983) 같은 생활영역에서 유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 이상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이다. 게다가 서구화와 근대화로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의 유입은

의식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시부모부양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

3. 부양스트레스의 대처행동(coping)

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생의 일부분으로(Selye, 1979) 생활 자체에서 생기기 때문에 피할수는 없고 다만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중화시키기 위한 그 무엇을 해야하는데 이와같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하는 행위를 대처행동(Coping)이라고 한다.

Pearlin과 Schooler(1979)는 스트레스원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과 외적 생활 긴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고 Lazarus와 Folkman(1984)은 개인의 자원을 초과하거나 짐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의 꾸준한 변화를 추구하는 인지적이며 행동적 노력이라고 하였다.

스트레스를 하나의 ‘위기’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대처행동에 대한 최근 연구의 급성장은 대처행동이 우울, 심리적 증상 그리고 신체적 질병과 같은 적응결과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념의 표현이었다(Billing & Moos, 1984).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Lazarus와 Folkman(1984)은 문제중심대처행동(Problem focused coping)과 감정중심대처행동(Emotion focused coping)으로 분류하였다.

문제중심대처행동(Problem focused coping)이란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변화시키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건설적인 대처행동이라 할 수 있고 감정중심대처행동(Emotion focused coping)은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채 불안을 감소하려는 것으로 감정에 초점을 둔 방어적 대처행동이라고 부른다.

성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중년여성과 중년남성의 98% 이상이 대

처행동의 방법으로 이 양 기능을 갖는 대처행동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자기보고식으로 극복방안을 표현한 대학생의 96%도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Lazarus et al., 1985).

Davis(1985)는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개인의 대처행동을 보면 여성은 일반적으로 수동적, 정서적, 종교에 의지, 도움추구, 회피의 책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남성은 문제중심적이며 인지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였다.

Holahan과 Moos(1985) 역시 대처행동으로 남성들은 더 많은 자기확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인들은 가족의 지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자체에 직면하기 보다는 외부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으로 장기적응방법과 단기적응방법을 제시하면서 두가지의 적응방법을 비교 설명한 Bell(1977)은 장기간의 적응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며 건설적인 방법으로서의 대응이라 하였고 단기간의 대처는 일시적이며 비효율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여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은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만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규범적인 행위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누군가와와의 대화를 통해 지지를 구하며 음악듣기, 책이나 T.V. 보기, 또는 스스로의 감정조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돌리며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한다(Schultz et. al., 1984). 그리고 부양자가 갖는 긴장은 배우자, 자녀, 그리고 여러 친척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긴장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Billing & Moos, 1984).

대처행동에 많은 관심이 부여되어 그동안 많은 대처행동들이 발표되었고 노부모부양에 관한 연구결과는 많지만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노부모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인자녀가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더군다나 노부모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혼여성 특히 며느리와 시모와의 관계는 고부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모부양으로 인한 기혼여성(딸, 며느리)의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유형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보고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기혼여성이 노모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처행동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의 대처행동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와 대처행동 그리고 각 하위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부양스트레스가 높은집단과 낮은집단에서 사용되는 대처행동 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Ⅳ. 연구방법

- 대처행동의 문항 선정 -

먼저 부양자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노모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의 경험적 진술을 위해 1992년 9월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광주직할시에 소재한 S·K대학교의 남여 대학생 200명과 목포시에 소재한 M대학교의 80명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개방형 질문(Open ended question)으로 1인당 5가지 내용의 문장을 기술하도록 하여 연구자가 중복되거나 어감이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여 총 56가지 문장을 작성하였다.

1차에서 경험진술을 하였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작성된 총 56종류의 대처행동을 나열하고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그중에서 다시

10문장을 선택하도록 한(조사는 1992년 10월 8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행해짐) 후 그들로 하여금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 19개의 항목을 부양자 스트레스 대처행동항목으로 선정하여 본연구를 위해 분석하였다.

- 본 조사 -

본조사는 1992년 11월 15일 부터 12월 20일까지 광주직할시내의 M국민학교, S중·고교, S·K대학교, 목포시 소재의 M대학교 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설문지를 딸과 며느리용으로 구분하여 노모와의 관계에 있어 딸과 며느리의 입장에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부양자의 스트레스정도는 선행연구에서 본연구자가 개발한 부양자스트레스 척도(Supporter Stress Scale)에 의거하여 각 문항을 5점 Likert점수로 평가하였는데 총점이 높을수록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많고 총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총점분포: 16점~80점).

스트레스에 대한 부양자의 대처행동에 관한 응답 역시 5점 Likert점수 환산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많이 하며 총점이 낮을수록 대처행동을 적게 하는 것을 뜻하였다(총점분포: 19점~95점).

부양자스트레스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 = .92$ 였으며 대처행동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 = .86$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자료 처리 -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통계는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요인분석, GLM,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t검증, 신뢰도 검증 이었다.

V.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는 모두 전남과 광주직할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총 600부가 배부되었으나 기재의 부실과 반응의 확실성을 제외한 54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3>과 같이 노모와의 관계는 며느리가 261명(47.9%) 딸은 284명(52.1%)이 응답에 참여하였고 그들은 30대가 56.9%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어머니의 연령은 60대 초반(25.7%), 50대 후반(19.8%), 60대 후반(17.1%) 순이었다. 응답자중 전업주부는 58.7%, 취업주부는 41.3%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수준은 대부분(73.2%)이 중·고졸의 학력을 가졌으며 소득수준은 과반수(62.5%) 이상이 1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년수는 6-10년이 29.9%로 가장 많았고 노모와의 동거여부는 동거가 극히 드물어 121명(22.2%), 별거가 424명(77.8%)로 핵가족화로 인한 노모와의 동거가 줄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자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건강하셨으며(64.5%) 아버님의 거의 과반수 이상(51.4%)이 생존해 계심을 알 수 있었고 기혼여성들의 종교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28.6%), 불교(24.8%), 천주교(15.8%), 유교 및 기타(1.8%)의 순이었다.

2. 연구문제의 검증

1) 연구문제 1. 기혼여성이 노모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처행동의 유형은 어떠한가?

부양자스트레스의 대처행동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처행동의 반응을 고유가(Eigenvalue)가 1.0 이상을 기준으로 principle factor analysis를 하였더니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표 1>참조) 이후 Varimax법에 의하여 요인축의 직교회전 결과로 경험진술로 만들어진 19개 문항이 0.3이상의 절대치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7

개의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60.5%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개발된 대처행동 내용은 본 연구자가 문헌(Billings & Moos, 1984; Carver et al., 1989; McCrae, 1982)에 의거하여 <표 1, 2>와 같이 기분전환, 감정의 분출, 억제, 도움 찾기, 수락, 재분석, 종교에의 의지 등

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속이 상해도 내색을 하지않고 껍 참는다'라는 단일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가 평균 3.15로 타 문항 점수에 비해 높았다. 요인4의 도움 찾기(Seeking support)는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워 친한 사람을 만나거나 가족원에게 지지를 얻음으로 심적인 안정을 찾는 대처행동

<표 1>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

대처행동 항목과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기분전환	감정의 분출	억 제	도움찾기	수 락	재분석	종교에 의존
2.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고 듣는다.	.5265						
3. 빨래, 청소, 바느질을 한다.	.5534						
6. 결혼전(미혼)의 시절을 회상한다.	.5917						
7.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찾아서 한다.	.5067						
10. 목욕을 하거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른다.	.5643						
11.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눕는다.	.5301						
12.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산다.	.5628						
1. 남편과 자녀에게 화를 낸다.		.5234					
8. 울어버린다.		.6047					
9.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 한다.		.4835					
4. 속이 상해도 내색을 하지 않고 껍 참는다.			.4079				
5.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			.5226				
13.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속사정을 이야기 한다.				.5357			
16. 내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에게 속사정을 이야기 한다.				.4132			
19. 이웃이나 친척, 윗어른에게 도움을 청한다.				.4631			
14. 나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내 팔자라고 여긴다.					.5550		
17.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한다.					.3536		
15. 무엇이 잘못되었나 꼼꼼히 생각해 본다.						.3947	
18. 기도를 하거나 교회나 절에 간다.							.3155
Eigenvalue	5.75	3.29	2.05	1.36	1.17	1.15	1.02
Pct. of Var.	18.25	13.84	10.0	5.23	4.65	4.33	4.20

으로 명명하였는데 이 중 기분전환과 감정의 분출이 주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1의 기분전환(Mental disengagement)은 부양자가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또는 잠을 자거나 다른일을 찾아서 함으로써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대처행동이고 요인2의 감정의 분출(Venting of emotions)은 울거나 심적인 고통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려는 대처행동이며 요인3의 억제(Restraint)는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며 자

이다. 요인5의 수락(Acceptance)은 문제를 직시하며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을 줄이려는 방법이고 요인6의 재분석(Resolving Problem)은 자기가 갖는 어려움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 원인을 찾음으로써 반복하여 갖게 되는 긴장을 미리 예견하고 피할수 있는 긍정적인 대처행동으로 여러 대처행동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7의 종교에의 의지(Turning to religion)는 전체 응답자 중 1/3정도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표 2〉 대처행동 유형

대처행동유형	대 처 행 동 내 용	M1(SD)	M2(SD)
(요인 1) 기분 전환	2.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고 듣는다.	1.99(1.02)	2.42(0.72)
	3. 빨래, 청소, 바느질을 한다.	2.76(1.23)	
	6. 결혼전(미혼의)의 시절을 회상한다.	2.55(1.23)	
	7.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찾아서 한다.	2.44(1.13)	
	10. 목욕을 하거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른다.	2.16(1.11)	
	11.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눕는다.	2.72(1.24)	
	12.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산다.(옷, 음식 등)	2.34(1.12)	
(요인 2) 감정의 분출	1. 남편과 자녀에게 화를 낸다.	2.45(1.12)	2.53(0.88)
	8. 울어버린다.	2.31(1.19)	
	9.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 한다.	2.81(1.26)	
(요인 3) 억 제	4. 속이 상해도 내색을 하지않고 껍 참는다.	3.15(1.21)	2.82(0.99)
	5.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	2.48(1.18)	
(요인 4) 도움 찾기	13.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속사정을 이야기 한다.	2.32(1.18)	2.31(0.86)
	16. 내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에게 속사정을 이야기 한다.	2.50(1.23)	
	19. 이웃이나 친척, 윗어른에게 도움을 청한다.	2.11(1.08)	
(요인 5) 수 락	14. 나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내팔자라고 여긴다.	2.88(1.18)	3.04(1.09)
	17.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한다.	3.19(1.17)	
(요인 6) 재 분석	15. 무엇이 잘못되었나 곰곰히 생각해 본다.	3.39(1.09)	3.39(1.21)
(요인 7) 종교에 의존	18. 기도를 하거나 교회나 절에 간다.	2.40(1.34)	2.40(1.04)

M1 : 각 문항의 평균 (범위 1-5)

M2 : 각 요인의 평균 (범위 1-5)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재분석의 대처행동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수락, 억제, 감정의 분출 순이며, 도움찾기가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들의 경험적 진술로 열거된 대처행동은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행동으로 종교에의 의지, 도움추구, 회피, 수동적인 대처행동을 거론한 Davis(198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연구문제 2-1.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2.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정도를 알아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GLM에 의한 F 검증을 한 결과 〈표 3〉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양스트레스는 노모와의 관계(P<0.001), 노모와의 동거여부(P<0.001), 노모의 연령(P<0.05), 모의 배우자 생존여부(P<0.0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처행동 점수는 노모와의 관계(P<0.01), 소득수준(P<0.05), 부양자의 주성장지(P<0.05), 모의 부양여부(P<0.05)에 따라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즉 노모와의 관계에 있어 며느리는 딸보다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고 노모의 연령이 71세 이상으로 노쇠한 경우 그리고 동·별거에 관계없이 노모의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 경우와 노모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부양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점수

변 인	분 류	N(%)	부양스트레스 점수		대처 행동 점수	
			M (SD)	F 값	M (SD)	F 값
관 계	며느리	261(47.9)	38.2 (13.5)	122.43***	50.3 (10.0)	6.69*
	딸	284(52.1)	26.8 (10.3)		47.9 (11.7)	
부양자 연 령	21 - 40세	403(73.0)	32.0 (15.2)	5.72*	49.1 (11.0)	0.04
	41세 이상	142(27.0)	34.2 (16.3)		49.0 (10.8)	
노모의 연 령	70세 이하	403(73.9)	31.7 (13.2)	2.81*	49.3 (11.1)	1.20
	71세 이상	142(26.1)	33.9 (13.2)		48.2 (10.6)	
자녀수	무 - 1 명	68(12.5)	33.2 (12.6)	2.81	51.3 (9.9)	1.41
	2 - 3 명	393(72.1)	32.3 (13.5)		48.8 (11.2)	
	4명 이상	84(15.4)	31.4 (12.5)		48.3 (10.7)	
취 업 여 부	전업주부	320(58.7)	31.4 (13.2)	2.69	49.6 (11.2)	1.73
	취업주부	225(41.3)	33.3 (13.3)		48.3 (10.8)	
부양자 학 령	중졸 이하	173(31.7)	31.3 (12.90)	0.78	48.9 (11.1)	0.86
	고졸	266(48.8)	32.1 (13.0)		48.9 (10.8)	
	대졸 이상	106(19.4)	33.5 (14.40)		49.7 (11.4)	
소 득 수 준	59만원 이하	38(7.0)	31.7 (12.9)	0.38	51.9 (7.6)	3.14*
	60-149만원	331(60.8)	32.5 (13.1)		49.3 (11.1)	
	150만원 이상	176(13.9)	31.9 (13.5)		47.8 (11.4)	
결 혼 수	10년 이하	231(42.4)	32.2 (12.9)	0.58	49.5 (10.8)	0.57
	11 - 20년	217(39.9)	31.7 (14.0)		48.4 (11.6)	
	21년 이상	97(17.7)	33.4 (12.3)		49.4 (10.2)	
출 생 순 위	장남·장녀	249(45.7)	33.1 (13.0)	0.98	49.1 (11.0)	0.02
	차남·차녀 이하	296(54.3)	31.6 (13.2)		49.0 (11.0)	
부 양 여 부	동·별거+부양	186(34.1)	38.7 (14.1)	77.11***	50.5 (10.4)	5.48*
	동·별거+자립	359(65.9)	28.9 (11.5)		48.3 (11.3)	
피부양 자건강	건강·양호	351(64.5)	31.9 (12.7)	0.59	49.1 (11.0)	0.04
	비 건강	194(35.5)	32.8 (14.2)		49.0 (11.0)	
부생존 여 부	생 존	279(51.2)	30.9 (12.2)	6.57*	48.9 (11.0)	0.14
	사별·이혼	194(35.5)	33.7 (14.1)		49.2 (11.0)	
종 교	불 교	135(24.8)	30.2 (13.2)	1.62	47.5 (11.2)	1.31
	기독교·천주교	242(44.4)	32.9 (13.3)		49.8 (10.8)	
	유 교	9(0.8)	36.8 (11.1)		49.6 (8.4)	
	무	159(29.0)	32.7 (13.2)		49.1 (10.7)	
주 성장지	도 시	225(41.2)	33.3 (13.5)	2.13	34.5 (11.2)	3.25*
	시 골	319(58.8)	31.4 (13.0)		32.2 (11.0)	

* P<0.05 ** P<0.01 *** P<0.001

〈표 4〉 부양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

	I	II	III	IV	V	VI	VII
기분 전환 (I)	1.0000						
감정의 분출 (II)	.5581	1.0000					
억 제 (III)	.3365	.2519	1.0000				
도움 찾기 (IV)	.4316	.3917	.2391	1.0000			
수 락 (V)	.3016	.3061	.0790	.2346	1.0000		
재 분 석 (VI)	.2488	.1182	.4828	.0790	.3732	1.0000	
종교에 의지 (VII)	.1849	.1187	.1196	.2232	.0596	.0754	1.0000
대처행동 전체	.8575	.7058	.6201	.6424	.4221	.3254	.3289
스트레스 정도	.3186	.4917	.2583	.2674	.1947	.1157	.1169

. 유의도는 P<.001 임.

의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을때 부양자의 스트레스는 더 높게 지각되었다. 한편 대처행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며느리가 딸보다 더 많은 대처행동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제도로 인하여 며느리는 딸보다 부모와 동거가 더 많이 이루어지며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갖기 때문에 부양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처하는 행동이 많아진다고 고려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는 생활수준이 낮은 부양자가 생활수준이 높은 부양자보다 대처행동이 더 사용되었는데 생활의 어려움으로 노부모부양이 부담으로 가중되어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주성장지가 도시였던 경우가 시골의 경우보다 대처행동의 사용이 많았는데 도시의 경우 일상의 스트레스에 접하는 경우가 시골보다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적응방법이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모에 대한 부양여부에 따른 대처행동 정도는 동·별거에 관계없이 노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우와 노모 부양이 필수적인 경우간에 P<.05의 유의도로써 노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기혼여성들의 대처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문제 3.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유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표 4〉는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부양스트레스와 대처행동 그리고 각 하위요 인간의 상관관계이다. 부양스트레스의 총점과 대처행동과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gamma=.4339$) 각 유형과의 관계는 $.4917 \leq \gamma \leq .1157$ 로 감정의 분출과 부양스트레스는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gamma=.4917$) 종교에의 의지와는 가장 낮은 상관관계($\gamma=.1157$)를 나타내고 있다.

4) 연구문제 4.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사용되는 대처행동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부양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사용되는 각 요인별 대처행동을 살펴본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대처행동의 각 7개 요인은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모두 유의한 차($P<0.001$)가 있었는데 그 중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억제와 기분 전환의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을 찾는 대처행동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양스트레스가 낮은 집단 역시 대처행동으로 억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도움을 찾는 대처행동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우

〈표 5〉 부양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각 대처행동 유형의 사용빈도와 평균값

대처행동 스트레스		기분 전환		감정의 분출		억 제		도움 찾기	
		N	M(SD)	N	M(SD)	N	M(SD)	N	M(SD)
스트레스	높은 집단	19	2.95(4.32)	7	2.81(1.94)	28	3.26(1.67)	6	2.87(2.30)
	낮은 집단	4	2.06(5.00)	37	2.76(2.21)	42	2.70(2.27)	2	2.56(2.42)
t 값		6.302***		10.262***		4.704***		5.627***	
대처행동 스트레스		수 락		재 분석		종교에 의지			
		N	M(SD)	N	M(SD)	N	M(SD)		
스트레스	높은 집단	10	2.80(1.83)	9	3.15(1.06)	17	3.22(1.20)		
	낮은 집단	3	2.10(1.95)	14	2.62(1.33)	22	3.11(1.25)		
t 값		3.770***		1.755***		1.696***			

. 스트레스 높은 집단 > 전체 M + SD. (n=96)

. 낮은 집단 < 전체 M - SD. (n=124)

. N (해당집단에서 사용되어진 빈도) . *** P<.001

리의 기혼여성들이 '효'사상에 입각한 인내와 순종으로 자신을 내색하지 않고 억제로써 대처하며 노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참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기혼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사용빈도가 가장 많았던 대처행동 가운데 억제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수락이 가장 낮았으며, 부양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는 종교에의 의지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기분전환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즉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대처행동으로 주로 억제를 하는 경향이 많고 수락의 대처행동은 거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부양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는 스트레스에 크게 좌우됨이 없이 스트레스로 인한 기분전환은 하지 않고 있었다.

VI. 결 론

최근에 증가된 많은 관심은 스트레스의 해로운 결과를 경감시키는 대처행동(coping)에 관해서인데(Lazarus & Cohen, 1979; Moos, 1977) 연구의 급성장은 대처행동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징후 그리고 신체적 질병과 같은 적응결과와 긴장을 가져오는 사

건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신념때문이었다(Billings & Moos, 1981).

복잡한 현대 가족생활에서 노부모부양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노부모부양을 여전히 가족이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배제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맺는 질적관계의 만족은 부양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심한 스트레스에 부딪히면 무산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노부모부양에서 갖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여 노부모와의 관계향상을 꾀함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이 노모를 부양함으로써 갖게 되는 어려움과 그러한 어려움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기혼여성들의 경험적 진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2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기혼여성들이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행동 유형을 19개의 문항으로 압축하였고 작성된 도구로 1992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주직할시내의 M국민학교, S중·고교, S, K대학교, 북포시 소재의 M대학교 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부양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부양자스트레스 척도($\alpha=.92$)와 대처행동척도($\alpha=.86$)가 사용되었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문항의 부양자 대처행동은 7가지 유형으로 추출되었으며 그들은 기분전환, 감정의 분출, 억제, 수락, 도움 찾기, 재분석, 종교에의 의지 등으로 명명되었고 기혼여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은 재분석, 수락, 억제, 감정의 분출순이었으며 도움찾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노모와의 관계($P<0.001$), 노모와의 동거여부($P<0.001$), 노모의 연령($P<0.05$), 노모의 배우자 생존여부($P<0.05$)였으며 대처행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노모와의 관계($P<0.01$), 소득수준($P<0.05$), 부양자의 주성장지($P<0.05$), 부양여부($P<0.05$)이었다. 즉 며느리가 딸보다, 노모의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노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노모의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을 때 부양스트레스는 높았으며 며느리가 딸보다, 소득수준이 낮으며, 부양자의 주성장지가 도시였던 경우 그리고 동.별거에 관계없이 부모의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부양이 많이 이루어졌던 경우에 대처행동의 사용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양스트레스와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았으며($\gamma=.4339$) 대처행동 각 하위요인중 감정의 분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였으나($\gamma=.4917$) 종교에의 의지는 가장 낮은 상관관계($\gamma=.1157$)를 보였다.

네째,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사용한 각 유형의 대처행동 정도에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그 중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억제와 기분전환의 대처행동이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 도움을 찾는 대처행동은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부양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도 역시 억제의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도움을 찾는 대처행동은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부양자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스트레스의 증감에 따라 대처행동의 유형과 사용 빈도도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인

위안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방향제시를 제공받기 원하며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로 부양자의 대처행동점수가 재분석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사료되지만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억제와 기분전환등의 일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대처행동을 사용하고 있음은 효율적인 대처행동이라 할 수 없다. 억제가 지나치면 우울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져오기 쉽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전문가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노화의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우리의 전통적 미덕인 '효'의식의 고취로 부모부양을 긍정적인 국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내적 통제력이 낮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 어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교육과 지원, 노인직업의 활성화 등으로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노부모부양이 규범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양자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면 노부모부양자를 위한 면세 혜택, 보조금 지급, 직업알선등의 각종혜택으로 노부모부양을 격려하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의존을 하게 되는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네째, 다양한 가족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기혼여성들의 정서순화를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양강좌나 레크레이션의 보급, 지역 상담실의 개설 등으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송애,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부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2)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3) 서병숙,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

- 학위논문, 1988.
- 4) 성규탁,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가족 중심적 부모부양의 이념 및 실천. 한국노년학회지, 9, 1989, 28-43.
 - 5) 성규탁,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1(2), 1991, 251-273.
 - 6) 송현애,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7) 이가옥 외 3인,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 서울: 대명문화사, 1990.
 - 8) 이신숙, 서병숙, 농촌 기혼여성의 노부모부양 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회지, 11(2), 1991, 191-211.
 - 9) 이신숙, 신효식, 기혼여성의 부모부양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가정학편, 제33집, 1988, 29-52.
 - 10) 이영자, 노인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2(1), 1992, 1-18.
 - 11) 이평숙,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양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12) 임춘희, 분거한 도시 장남부부의 부양의식 유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13) 조희선,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 14) Antonovsky, A., Health, stress and coping. San Francisco: Jossey-Bass, 1979.
 - 15) Bell, J.M.,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s in mental illness and wellness behaviors, Nursing Research 26(2), 1977, 136-141.
 - 16) Billing, A.G., Moos, R.H.,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 with unipolar depress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1984, 877-891.
 - 17) Caplan, G., Mastery of stress: Psychological aspects, American J. of Psychiatry, 138, 1981, 413-420.
 - 18) Carver, C.S., Scheier, M.F., Weintraub, J.K.,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1989, 267-283.
 - 19) Cicirelli, V.G.,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Adult children and their elderly parents, edited by Timothy H. Brubaker, SAGE Publications, Beverly Hills/London/new Delh, 1981.
 - 20) Croog, S., The family as a source of stress, In S. Levine & N.A. Scotch(Eds.), Social Stress, Chicago: Aldine, 1970.
 - 21) Davis, 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The Gerontologist, 22(6), 1984.
 - 22) Fisher, L.R., Mothers and mothers-in-law, J.M.F., 1983, 187-192.
 - 23) Hagestad, G.O.,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Trends and gaps in past research, Lancaster, J.B., Rossi, A.S., Altman, J., Sherrod, L.R., (Ed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85, 405-433.
 - 24) Holahan, C.J. & Moos, R.H., Life stress and health: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support in stress resistanc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1985, 739-747.
 - 25) Johnson, E.S., Good relationship between older mothers and their daughters: A causal model. The Gerontologist, 18(3), 1978, 301-306.
 - 26) Lang, A.M., & Brody, E.M.,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 and help to their elderly mothers, J.M.F.(Feb.), 1983, 193-201.
 - 27) Lazarus, R.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 28) Lazarus, R.S., Folkman, S., Gruen, R.J. & DeLongis, A.,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1985, 571-579.
 - 29) Lopata, H.Z., Contribution of extended families to the support system of metropolitan area widows: Limitations of the modified kin network,

- J.M.F., 40, 1978, 355-364.
- 30) McCrae, R.R., Age differences in the use of coping mechanism, *J. of Gerontology*, 37(4), 1982, 454-460.
- 31) McCubbin, H.I., Joy, C., Cuble, A.E., Patterson, J.M., & Weedle, R,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M.F.*, 42(1), 1980, 125-141.
- 32) Pearlin, L.I., Status inequality and stress in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1975, 344-357.
- 33) Pearlin, L.I. & Schooler, C., The structure of coping,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1979, 2-21.
- 34) Schultz et.al., Loneliness: Correlates, attributions and coping among older adul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1984, 67-97.
- 35) Selye, H., *The stress of lif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9.
- 36) Shanas, E. & Hauser, P.M., Zero population growth and the family of older people, *J. Sociology Issues*, 30, 1974, 81.